



한·미 방산협의회 양국 업체 협력강화 방안 모색

韓·美 방산업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 방산협의회 제1차 회의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 주최로 지난 5월 10일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방산협의회는 기존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가 발전 구성된 것으로 이번 1차회의에서는 양국 업체대표 및 정부인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제6차 한·미 방산회의의 세부방침을 협의하고 주한미군



사업무단에서 한·미 공동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업체주도 연구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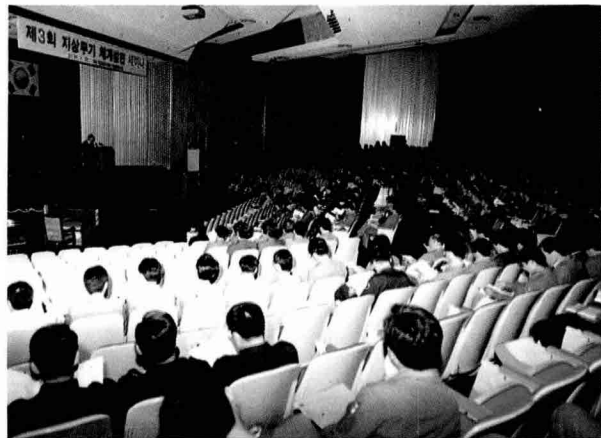
제3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제3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지난 4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강당에서 13개 군 기관, 30개 방산업체, 防振會, 國防研 및 國科研의 관계관 등 3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상무기체계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육군 교육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그동안 무기체계 분야별 발전방향, 세계적 발전추세분석 및 연구개발계획을 내용으로 실시하여 신규 무기체계 소요창출과 연구개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올해에는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도태방향과 ROC설정방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産·研·軍 관련기관의 업무이해증진 및 상호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지상무기체계발전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본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상호인식하였다. 또한 다음 세미나에는 방산업체도 주제발표를 하는 등 세미나의 범위확대와 개선방안이 토의되었다.



▲ 이번에 발표, 토의된 내용들은 심층 검토를 통해 육군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제기, ROC 기준 재설정, 무기체계 도태계획수립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삼선공업 美 BELL社에 헬기 부품 수출



◀삼선공업(주)은 현재 수입소재를 100% 사용하여 부분조립 및 가공에 제한되어 있던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에서 알루미늄 압출소재를 국산화시킴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항공기 부품에 국산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알루 미늄 합금 압출업체인 삼선공업(주)이 세계 최대 헬기 제조회사인 미국의 벨社에 헬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인 회전익(SPAR-MAIN ROTOR BLADE)을 생산, 수출한다. 수출량은 약 60만불 정도로 오는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납품기로 확정하였다.

삼선공업(주)은 알루미늄 전문 제조회사로서, 국내의 알루미늄 생산기술 개발을 주도해 왔는데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항공기용 고력 알루미늄 소재 개발을 88년말에 완료하였으며, 대한항공·한국화이바·삼선공업(주) 3社가 한국 항공우주연구조합을 설립하여 지난 91년에는 5인승 다목적 경비행기(창공91) 제작에 성공한 바있다.

▼삼선공업이 벨社에 수출하는 헬기 회전익



벨社와는 지난 90년초부터 항공기 부품 수출을 추진하여, 93년에 품질보증절차 및 공정관리 승인을 얻은데 이어, 94년 3월 최종적으로 시제품 테스트에 통과하여 계약을 확정시켰다.

삼선공업(주)이 벨社에 회전익을 납품하게 됨으로써 국내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물론 다른 항공기용 부품도 항공기 산업에서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벨社는 세계최대의 헬기 제조회사로서 민수 및 군수용 헬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기종의 헬기를 수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삼선공업(주)은 이를 계기로 항공기 부품 소재수출에 더한층 박차를 가해 록히드社(KFP 관계회사)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등 국내 3社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삼선공업(주)의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업무를 상호 추진 중에 있다.